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7화)

“교만심에 빠지는 걸 경계하라”

〈출전: 잡아함경 제49: 1298경: 2-357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이렇게 들었다

로또 광풍

마음 편함이 최고

로또 복권 열풍이 지나갔다. 아니, 선재가 보기에는 열풍이라기 보다는 광풍에 가까운 유행이 지나갔다. 1등만 하면 이 땅을 뜨네, 마네 하며 온갖 즐거운 상상과 함께 수백억이라는 '대박'을 꿈꾸던 사람들의 지금 심정이 선재는 무척 궁금하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이 선재의 신조인 만큼 선재는 복권을 잘 사지 않는다. 매년 당첨되지 않는 것을 보며 역시 행운이 다가올 정도의 선업을 짓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백억이라는 거금을 그런 선재의 마음까지도 흔들 뻔 했다.

결국 1등 당첨자가 13명이나 되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보통 때의 1등 당첨금 정도라는 소식을 듣고서 새삼 세상 이치라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복권이 판매액에 따라 당첨금이 결정되는데, 많이 팔린 만큼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왔으니 말이다.

그러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몇 십억의 당첨금은

결국 단돈 만원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돈이 모인 것이고, 그들의 행복이란 손에 들고 발벌 떨며 가슴 졸이다 "그럼 그렇지" 하며 짝어버린 출력지에 묻은 한숨이 모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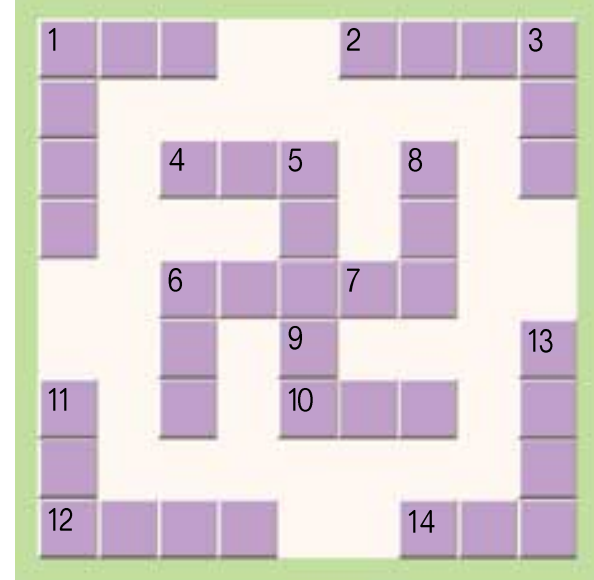
수백억이라는 기쁨에서 수십억이라는 상대적인 슬픔을 겪지도 않고 한껏 부푼 기대가 사라져 아쉬울 것도 없는 선재가 어쩌면 가장 마음 편한 1등이 아니겠는가?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할 때 그 안색은 깨끗해진다. <법구경>

조그마한 즐거움을 버리고 커다란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깨우침의 큰 즐거움을 바라고, 작은 즐거움을 버려라. <법구경>

욕심은 불이나 칼, 독이므로 쾌락을 구해서는 안된다. 온갖 욕심은 마치 불이 맹렬히 타는 것과 같다. <정법법처경>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 부처님과 보살 등이 갖추고 있는 여섯 종류의 초인적 능력
- 4아함경의 하나. 비교적 장문의 경문을 모아 붙여진 이력
- 화두를 들지 않고 묵묵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끊고 잠선하는 선법
- 팔정도
- 바른 견해
- 밀교의 반대말. 언어 문자의 바탕위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서 나타낼수 있는 가르침
-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 0유아
- 사미나가 지켜야하는 계법
- 여자 스님

< 408호 「교리퍼즐」 정답 >



세로

- 대승불교에 있어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가지 덕목
- 경을 읽고 염불을 하는 것
- 작한 법. 선지식이라고도 함. 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 부처님의 아버지
- 불국사의 대웅전과 극락전을 오르는 동쪽의 다리. 백운교와 함께 있음
- 자신의 견해에 강하게 집착하여 떠나지 않는 것. 아견과 동의어
- 사명대사의 출가 사찰로 경북 김천 황악산에 위치한 절
-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중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